

불설아미타경

佛說阿彌陀經

여기에서 서방으로
십만 억 불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극락(極樂)이라.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아미타(阿彌陀)이시며,
지금 현재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개경계 開經偈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하신 가르침.
영원토록 만나 뵈기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어,
부처님의 참되신 뜻
알아지이다.

불설아미타경

佛 說 阿 彌 陀 經

■ 서분(序分)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

한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서 대비구(大比丘) 천이백오십 인과 더불어 함께 계시었다. 그들은 모두 대아라한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들이었으니, 장로(長老) 사리불, 마하목건련, 마하가섭, 마하가전연, 마하구치라, 리바다, 주리반타가, 난타, 아난타, 라후라, 교범바제, 빈두로파라타, 가루타이, 마하겁빈나, 박구라, 아누루타 등 이와 같은 여러 큰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문수사리법왕자, 아일다보살, 건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 등 여러 대보살들이 있었으며, 또한 석제 환인 등 수 많은 여러 천인들과 더불어 함께 계시었다.

■ 정종분(正宗分)

제 1절 극락정토(極樂淨土)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방으로 십만 억 불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극락(極樂)이라.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아미타(阿彌陀)이시며, 지금 현재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불아, 그 국토를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하는 줄 아는가? 그 나라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온갖 즐거움만 누리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사리불아, 극락국토에는 일곱 겹의 난간과 일곱 겹의 나망(羅網)과 일곱 겹의 가로수가 있는데, 이

들이 모두 금·은·청옥·수정 등 네 가지 보배들로
두루두루 둘러싸여 있으므로, 그 나라를 극락이라 하
느니라.

사리불아, 또한 극락국토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
다.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 물로 가득 찼고, 연못 바닥
에는 순전히 금모래로 깔려 있으며, 연못 둘레에는
금, 은, 유리, 파려로 이루어진 층계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각이 있어서 역시 금, 은, 유리, 파려, 자거, 적진
주, 마노 등으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다.

연못 가운데 핀 연꽃은 크기가 큰 수레바퀴만하여
푸른 꽃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런 꽃에서는 누런 광채가 나며,
붉은 꽃에서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꽃에서는 흰 광채가 나서
이를 데 없이 향기롭고 정결하다.
사리불아,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하게
이루어져 있느니라.

사리불아, 또한 그 불국토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울리며,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으며, 밤낮 육시(六時)로 끊임없이 천상의 만다라 꽃이 비처럼 내린다. 그 나라 중생들은 이른 아침마다 각각 바구니에 온갖 미묘한 꽃을 담아서 다른 나라에 계시는 십만 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식사 때까지 본국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경행(經行)을 한다.

사리불아,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하게 이루어져 있느니라.

사리불아, 또 그 나라에는 가지가지 기묘하고 다양한 빛깔을 가진 백학·공작·앵무새·사리새·가릉빙가·공명조 등 새가 있어서, 이 새들이 밤낮 육시로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낸다.

그 소리에서는 오근(五根)·오력(五力)·칠보리분(七菩提分)·팔성도분(八聖道分) 등 법문 설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 세계의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염불(念佛)·염법(念法)·염승(念僧)을 한다.

사리불아, 그대는 이 새들이 죄업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 불국토에는 삼악도(三惡道)가 없기 때문이다.

사리불아, 그 불국토에는 악도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실제로 그런 것이 있으랴! 이 여러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阿彌陀佛)께서 법음(法音)을 퍼기 위하여 화현(化現)으로 만드신 것이니라.

사리불아, 그 불국토에는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나망에서 미묘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백천 가지 악기가 합주하는 것과 같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가 자연스럽게 염불(念佛)·염법(念法)·염승(念僧)할 마음을 낸다.

사리불아,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하게 이루어져 있느니라.

사리불아, 너는 어찌하여 그 부처님을 아미타라 하는 줄 아는가?

사리불아,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침이 조금도 결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라 한다.

사리불아, 또한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무량무변 아승지겁이므로 아미타라 하니, 아미타불이 성불하신 지도 벌써 십겁(十劫)이 지났느니라.

사리불아, 그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문(聲聞)제자들이 있으니, 모두 아라한들이다.

그 수를 헤아려 알 수가 없고, 모든 보살 대중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불아, 그 불국토는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되었느니라.

사리불아, 또한 극락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아비발치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보처(一生補處)에 오른 이들이 또한 수 없이 많아, 숫자로써 알 수 없으며 다만 무량무변 아승지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제 2절 염불왕생(念佛往生)

사리불아,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원(願)을 발하되,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으뜸가는 여러 착한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아, 작은 선근이나 복덕의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날 수는 없다.

사리불아,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있어 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을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삼일·사일·오일·육일 또는 칠일 동안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名號)를 외워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인들과 더불어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마음이 휘돌리지 아니하여, 곧 바로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往生)하게 된다.

사리불아, 나는 이러한 공덕이 있는 것을 보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누구나 이 말을 듣는 자는 그 불국토에 가서 나기를 발원할지니라.

제 3절 제불찬탄(諸佛讚歎)

사리불아, 내가 지금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듯이, 동방에도 아촉비불과 수미상불·대수미불·수미광불·묘음불 등 향하의 모래 수만㎞의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각각 계시는 불국토에서 삼천大千세계를 두루 덮는 큰 목소리를 내어 성실한 말씀으로 연설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는 바, 모든 부처님이 호념(護念)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고 하신다.

사리불아, 남방세계에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향하의 모래 수만㎞의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각기 계시는 불국토에서 삼

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큰 목소리를 내어 성실한 말씀으로 연설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는 바, 모든 부처님이 호념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고 하신다.

사리불아, 서방세계에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등 향하의 모래 수만كم의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각기 계시는 불국토에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큰 목소리를 내어 성실한 말씀으로 연설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는 바, 모든 부처님이 호념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고 하신다.

사리불아, 북방세계에도 염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 향하의 모래 수만كم의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각기 계시는 불국토에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큰 목소리를 내어 성실한 말씀으로 연설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는 바, 모든 부처님이 호념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고 하신다.

사리불아, 하방세계에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 등 향하의 모래 수만كم의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각기 계시는 불국토에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큰 목소리를 내어 성실한 말씀으로 연설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는 바, 모든 부처님이 호념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고 하신다.

사리불아, 상방세계에도 범음불, 속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 등 향하의 모래 수만كم의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데, 각기 계시는 불국토에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큰 목소리를 내어 성실한 말씀으로 연설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바, 모든 부처님이 호념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고 하신다.

제 4절 왕생극락(往生極樂)

사리불아, 어찌하여 이 경을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하시는 경이라고 하는 줄 아는가?

사리불아, 만약 선남자·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니거나 부처님들의 명호를 들으면, 이 모든 선남자·선여인들은 모든 부처님들의 호념하심이 되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된다.

이 까닭에 사리불아, 너희들은 모두 마땅히 나의 말과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을지니라.

사리불아,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발원(發願)하였거나, 지금 발원하거나, 장차 발원하여 아미타불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아누다라삼막삼보리

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저 불국토에 이미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거나 장차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리불아, 선남자·선여인으로서 신심이 있는 자는 마땅히 저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여야 하느니라.

제 5절 칭찬여래(稱讚如來)

사리불아,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과 같이, 저 모든 부처님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기를, '석가모니불이 몹시 어렵고 희유(希有)한 일을 위하여, 능히 사바세계의 겁탁(劫濁), 견탁(見濁), 번뇌탁(煩惱濁), 중생탁(衆生濁), 명탁(命濁)인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일체 세간의 믿기 어려운 법을 말씀한다' 고 하신다.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오탁악세에서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고, 일체 세간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라.”

■ 유통분(流通分)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과 일체 세간의 천상사람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여 믿고 받아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